

혁신적 광융합 기술 한눈에...광주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개막

122개 기업 16개 기관 참여, 20개국 100명 해외바이어 초청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혁신적 광융합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22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가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광융합 관련 신기술 교류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됐다.

24일까지 진행될 이번 전시회는 올해 20회째를 맞는 국내 최대 광융합분야 전시회로 LG이노텍, 금호전기 등 국내 선도기업 6곳과 에이버추얼, 옵티파워 등 116개 유망기업 및 16개 지원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전시품목으로 초소형 Si 광스캐너, 통합 도파관 광 전력 분배

장치인 PLC스플리터, 다파장 LED 광원, 광센서, LED 투명디스플레이, 무채혈 진단기, 충격 감시 가로등 등이다.

아울러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채용홍보관을 운영하고 광융합 산업분야 직무소개 및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별도로 진행한다.

이밖에 ▲광의료헬스산업 협동조합관 ▲광의료헬스심포지엄 포럼 ▲PLC·라이다 기술교류 세미나 ▲MEMS기반 산업 기술교류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특히 광주시는 해외바이어를 현장으로 대거 초청해 지역 기업의 제품 판매 및 홍보의 장을 마련해 줌

으로써 지역 광융합 산업 생태계에 활력이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산업은 여러 기업과 함께 노력한 덕분에 20년이라는 축적의 시간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산업을 더해 광융합산업 허브도시로 도약하자"고 말했다.

개막식은 강기정 시장, 심철의 시의회 부의장 등 시의원, 정철동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장, 기업대표 및 유관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환영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윤규진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23일 오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회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 정몽구 재단,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파이널 데이 행사 개최

2022년 10기 임팩트 스타트업 28개팀 신규 선발, 총 11억 6천만 원 지원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22일(화) 서울 명동에 위치한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파이널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차그룹과 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1년 간 사회적경제기업 및 임팩트 스타트업 1) 육성 사업인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사업을 지속 전개해 왔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는 ▲예비 창업~법인 3년차 스타트업의 시장 검증에 지원하는 'H-온드림 A(Adaptive Incubating)' 트랙 ▲연 매출 1억원 이상 스타트업의 성장 가속화를 지원하는 'H-온드림

B(Business Accelerating)' 트랙 ▲현대차그룹과 협력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H-온드림 C(Collective Environment Action)' 트랙으로 모집 단위를 세분화해 트랙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재단은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사업으로 올해 9월까지 스타트업 294개 육성, 일자리 5천195개 조성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해 왔다.

올해에는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 간의 모집 및 심사 기간을 거쳐 A 트랙 20팀, B 트랙 5팀, C 트랙 3팀, 포함 28개팀의 10기 펠로2)를 신규 선발했으며, A 트랙 팀별 2천만원,

B 트랙 팀별 4천만원, C 트랙 팀별 5천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A 트랙은 별도 중간평가 실시 후 15팀에게 각 1천만원 추가 지급)

10기 펠로들은 선발 후 약 6개월간 ▲63억 2천만원의 매출 달성 ▲49억 6천만원 규모의 투자 유치 ▲79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55건의 MOU 및 28건의 계약 체결 ▲33건의 특허 출원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전에서 16건의 수상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파이널 데이' 행사에서는 28개 펠로 중 특히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펠로를 '우수 펠로'로 선정해 수상했으며, A 트랙 우수 5팀에 각 1천만원, B트랙 우수 1팀에 6천만원, C 트랙 우수 1팀에 1억5천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했다.

A 트랙에서는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종이팩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리필리' ▲푸드 업사이클링을 통해 식품 부산물을 재사용한 친환경 식품으로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리하베스트' ▲프리미엄 페미니 헬스케어 브랜드로서 무독성 천연 흡수체 '셀라텍스(CELLATEX)'가 첨가된 유기농 생리대를 제조·판매하는 '이너시아' ▲친환경 소재만을 사용한 하이브리드 골프웨어 '에이븐(Aven)'을 제작하는 '콜베어스' ▲버섯을 이용해 닭고기 식감의 식물성 원육을 개발, 소비자에게 육류 소비 없이도 지속가능한 음식 경험을 제공하는 '위미트'가 우수 펠로로 선정됐다.

B 트랙에서는 ▲페이차전지 분리막을 재활용해 기능성 리사이클 소재를 개발하고 그린 임팩트를 창출하는 '라이트루트'가, C 트랙에서는 ▲지능형 수목양용 로봇을 활용해 차세대 수질 모니터링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트와'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이너시아 김효이 대표 ▲라이트루트 신민정 대표 ▲아트와 강동우 대표 등 우수 펠로 대표 3인의 성과 발표 및 그룹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돼 선발된 펠로들이 상호 간의 유대감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했다.

권오규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대차 정몽구 재단 설립자이신 정몽구 명예회장의 기업이 정신과 도전 정신이 본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가 여러분께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곤 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기후 위기와 양극

화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가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것은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가의 산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과 재단은 지난 5월 개최한 '오프닝 임팩트 데이' 행사를 통해 스타트업 육성 5개년 비전을 공개한 바 있다.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천억 원 규모의 투자 지원 ▲스타트업 250개 육성 ▲일자리 6천개 창출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수 기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 있는 남자 Project

살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 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